

# “3高 넘는 ‘복합위기’... 인재양성·디지털 전환 등 총력”

## 중기부 산하기관, 중소기업 지원 화두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첨단신산업 중심 현장인력 양성”  
**김중호 기보 이사장**  
“기술금융 지원확대, 신뢰성 확보”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 등 디지털 전환 추진”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중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이 2023년 신년을 맞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소위 ‘3고(高)’를 포함한 복합위기에서 처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 미래를 위한 디지털 전환,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기관에는 ‘혁신’을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2일 각 기관들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남 진주 본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사무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3고’뿐 아니라 실물경기 둔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자산가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복합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사업 혁신을 위해 ▲첨단 신산업 중심 현장인력 양성 및 인력 불일치 해소 ▲스마트트레이드허브,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등 속도감 있는 수출·물류 지원 ▲이차

보전 사업 도입 등 중소·벤처기업 이차 부담 완화 ▲현장 규제 혁신을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 확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 첨병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재양성, 글로벌협력, 금융지원, 규제혁신 등에 임직원들이 매진해 줄 것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올해는 보다 성숙한 공정·화합·전문성의 토양 위에 ‘동행(同行)’이란 가치를 더하고자한다”면서 ▲인사 공정성 지속 제고 ▲직무 중심 인력 운영 체계 구축 ▲직무교육 고도화 ▲직무중심의 보수 체계 도입 ▲부서 이기주의 타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술보증기금도 이날 부산 본사에서 사무식과 새 비전 선포식을 함께 진행했다.

기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기업의 스타트업(Start up)부터 스케일업(Scale up)까지 함께하는 혁신성장플랫폼’을 새 비전으로 선포했다. 아울러 임직원이 실천할 핵심가치로 ▲공정 ▲혁신 ▲연대를 꼽았다.

김중호 기보 이사장은 “복합경제위기 대응과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는 등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펼쳐나가겠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위해 기술거래와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기술거래 중개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지향적인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비효율을 제거해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와 자산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하고 공유하겠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의 ESG 동반자로서 기업의 ESG경영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소상공인들의 지원 기관 역할에 충실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창립 9주년을 맞는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의 ‘유지경성(有志竟成)’을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요구 등 정부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기관의 혁신을 이끌어내야 하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마련 등 대외적으로는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새해에도 임직원 모두 화합해 한마음 한

뜻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자”고 독려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및 인프라 지원, 동반성장 문화 확산 등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중기부 산하기관 중 유일한 TV홈쇼핑 채널인 공영홈쇼핑은 새해를 맞아 ‘3대 사업전략’을 제시했다.

‘실체적 변화’와 ‘혁신의 가속’을 통해 판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격 기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공정의 가치, 상생의 가치, 소비자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에 주력하겠다”면서 ▲입점, 편성, 방송의 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신규 중소기업, 신규 상품 진입 대폭 확대 ▲중소기업 유망상품 발굴 및 육성위반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했다.

조대표는 “라이브커머스, SNS커머스 등 신커머스 본격 추진과 외부 플랫폼과의 제휴 확대를 통해 모바일 중심의 사업 재편에 더욱 속도를 붙이겠다”면서 “개발 중심의 MD 기능 강화, PB(자체브랜드)·NPB(유통·제조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직매입, 직거래 확대와 함께 매체별 통합 소싱을 위한 노력 등 ‘상품혁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시몬스, 2년 연속 ‘가격 동결’

### 안정호 대표 “소비자 신뢰 위해”

안정호 시몬스 대표가 약속을 지켰다. 시몬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침대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2일 밝혔다. 2년 연속 동결이다.

지난해에만 에이스침대, 템퍼, 쉐리침대, 코웨이, 한샘, 현대리바트 등 침대·가구·매트리스 업계가 원자재값 상승에 못이겨 제품 가격을 줄줄이 올린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다.

안정호 대표는 지난해 10월말 경기 이전에 있는 시몬스 팩토리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부자재 가격 오름세가 예상 밖의 수준”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수급도 원활치 않아 고생을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과의 신뢰를 위해 “현재로서는 (가격을) 당장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원자재가격 상승 압박이 만만치 않고 인건비 인상 등도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동결’키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시몬스의 경쟁사인 에이스침대



안정호 시몬스 대표가 지난해 10월25일 경기 이전 시몬스 팩토리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시몬스

는 지난해 제품 가격을 최대 20% 올렸다. 외국계 업체인 쉐리침대와 템퍼도 두 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한샘과 현대리바트는 지난해 각각 다섯 차례와 세 차례에 걸쳐 가격을 올렸다. 이케아코리아와 일룸도 세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이같은 ‘인상 러시’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종합가구사인 한샘의 경우 올해부터 부엌·수납 일부 모델의 도어, 판넬 등의 가격을 평균 2.7% 올리기로 했다. 쉐리침대와 매트리스 렌탈을 하는 코웨이 등도 가격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 기자

## 교원그룹 초보셀러 이커머스 교육

교원그룹이 초보 셀러들을 위한 이커머스 특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교원그룹은 이커머스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초보 셀러 육성 프로젝트’ 2기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12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초보 셀러 육성 프로젝트는 패션 소핑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 사업자나 창업 준비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물류·풀필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교원스타트원과 교원 스타트업 프라이즈에서 선발된 패션의류 도매플랫폼 ‘어이사컴퍼니’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3개월간 오피스 공간 무상 제공을 비롯해 패션 관련 이커머스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프로젝트에선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이해와 운영 노하우 ▲판매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실무 교육 등이 이뤄진다. 또한 촬영 스튜디오·최저가 택배비·어이사마켓우선 사업 지원 등 소핑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까지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해 초보 판매자들이 사업 초기에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돕는다. /김승호 기자

## 코웨이, 서장원 대표 단독체제 전환

이해선 부회장, 퇴임 후 비상고문 직

코웨이가 올해부터 서장원 대표(사진) 단독 체제로 전환한다. 2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해 각자 대표이사직을 수행했던 이해선 부회장은 퇴임 후 비상근 고문을 맡아 코웨이를 지원한다.

서장원 대표는 미국 웨스트민스터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법무법인 세종 선임 미국변호사를 거쳐 넷마블 투자전략·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과 넷마블 문화재단



대표를 각각 역임했다. 넷마블이 코웨이를 인수한 이후엔 코웨이 CFO 부사장을 맡았다. 코웨이는 아울러 정 기입원 인사를 통해 전 현정 경영지원본부장이 상무에서 전무로, 박준현 법인사업실장과 이용준 영업지원 실장이 상무보에서 상무로, 김원태 미국 법인장과 황진상 디자인센터장이 부장에서 상무보로 각각 승진했다. /김승호 기자

## 유진그룹, 사무식 대신 ‘기부’로 새해 시작

유진그룹이 8년째 기부를 하는 것으로 새해 사무식을 대신했다.

누적 기부액만 지금까지 총 19억원에 달한다.

유진그룹은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총 3억원의 성금과 물품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성금 기탁에는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동양, 푸른솔골프클럽 등 유진그룹의 주요 계열사 등이 참여했다.

유진그룹의 기부 사무식은 올해로 8번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직원들에게 나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새해 첫 업무를 기부로 시작했다. /김승호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전장연 “5분내 탑승” 시위 재개...서울시, 원천 차단 /사진 뉴스스  
▲ 얼어붙은 전주 세병호서 잇단 익사사고...“안전관리 강화”

▲ 제주 개 화살 학대 수사 4개월 넘게 답보  
▲ 영등포구, 겨울방학 866명 급식비 지원...결식아동 포함



▲ 양대노총 “노동개혁 반드시 저지...尹정부 탄압에 항쟁”  
▲ 강동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3월 준공 /사진 강동구